

MONTHLY KOFA

코파의

힘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44**
2026/09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10 4614/1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사진=한인뉴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대사관 대강당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

소개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 의례에 이어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순구 대사가 대독한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칠혁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의 회복을 꿈꾸며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 질서 격변의 분수령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세계가 꼭 필요로 하고 어떤 나라도 대신

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고 선언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전쟁을 종식하고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차이가 적대가 되지 않고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해 희망·기회·균형·평화의 새로운 광복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광복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책임이며 내일을

향한 약속”이라며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 차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정체성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김우재 한인회 명예고문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찬 만세를 외치는 등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인사회의 결속을 다졌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은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한인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성료

총 13억 900만 루피아 조성...
JKKS 및 다문화가정에 4억 3천만 루피아 우선 전달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현)가 주최한 ‘제2회 2026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8월 14일 남부땅그랑 BSD 골프장(Damai Indah Golf BSD)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윤순구 대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현 회장, 양영연 명예회장, 김우재 명예고문 등 동포사회 주요 인사와 기업인, 한인동포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플래티넘부터 브론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 후원 구좌에 한인 기업과 단체들이 동참하며 총 13억 900만 루피아의 기금이 모였다. 한인회는 이 중 4억 3천만 루피아를 장학금으로 우선 전달했다. 특히 올

해는 지원 대상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KKS)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넓혔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김경국 재단이사장, 임주섭 교감)에 4억 루피아를, 재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후원회가 추천한 이아름 학생(최상재 고문, 이채민 교사 대리 수령)에게 3천만 루피아를 각각 지급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자카르타한국국제교재단 김경국 이사장은 “작년 후원금을 뜻깊게 잘 썼고 올해 기금 역시 소중하게 집행하겠다”며 “현재 전교생 7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고, 매년 15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전액 지원은 30여명 수준이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최태립 부회장이 2명의 학생에게 개인 장학

금을 후원했듯, 차세대 인재 육성에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추천 소감을 전한 이채민 교사는 “선정 소식을 전하자 학생이 감사하다는 말 대신 울먹였다”며 “남편 없이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해 온 학생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한인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전달된 장학금 외 잔여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지속 적립하는 한편,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비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한인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장학생 추천을 받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2회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사진=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윤순구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인사회가 모범적인 공동체로 발전하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대회를 기획하고 동포들을 모아준 한인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김종현 한인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후원해 주신 기업인들과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에게 한인사회가

결에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70인치 TV를 비롯해 무궁화유통 자체 브랜드 ‘불면’, 단체복, 백팩, 수건, 썬크림·화장품, 떡볶이, 항공권, 발리하이 맥주, 홍삼보 음료 등 다채로운 물품 후원과 함께 한식당 예원, 청담, 도마, 한옥의 만찬 지원이 있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가 현장 진행을 지원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자카르타경제신문]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함께 숨 쉬며, 문화적 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따뜻한 이웃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 일곱 번째 수넛판마살 열어



▲ 수넛판 마살 행사기념촬영. 가운데 좌측 박성대 땅그랑반튼한인회장, 가운데 우측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류완수 영사. 인도네시아 관계자 및 땅그랑반튼 한인회 관계자, 수술을 위한 아이들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회장:박성대)는 지난 15일 땅그랑소재 Rumah Sakit Islam Sari Asih Ar-Rahmah에서 형편이 어려운 현지 주민자녀를 위한 수넛판마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땅그랑반튼한인회 박성대회장(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고문)을 비롯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류완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장 이정후, 땅그랑반튼한인회 명예회장 오세명, 땅그랑반튼한인회 명예회장 채만용, 땅그랑반튼한인회 수석부회장 홍종서의 현지인 관계자와 많은 분들이 참석해 격려를 해주었다.

올해로 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한국기업의 현지인 직원 자녀 및 지역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만 1세부터 10세까지의 100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땅그랑반튼한인회가 2010년부터 2년마다 진행하는 Sunatan Massal 행사의 목적은 의료 지원을 통한 단순한 봉



▲ 박성대 땅그랑반튼한인회장과 수술을 위한 의료진, 아이들과의 기념촬영



사의 의미를 넘어서, 땅그랑반튼한인회가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일원로서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전통이 담긴 중요한 통과 의례인 수넛판마살을 개최하여, 현지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아낄 때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도 땅그랑반튼한인회는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와 늘 함께 숨 쉬며,

문화적 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한발 더 다가가는 순수함과 어울림의 목적이었다.

박성대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은 뜻깊은 수넛판 마살 합동할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우리 땅그랑반튼한인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중한 전통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아이들과 가정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올해도 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록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작은 나눔이 한 가정에는 큰 희망이 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합동 할례 행사의 성공을 위해 지역 사회의 핵심 주체들과 든든한 한국 기

업 스폰서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땅그랑 시정부(Pemerintah Kota Tangerang), 현장 안전과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군·경(TNI 및 POLRI),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군경자녀 협회(FKPPI)가 함께했다.

여기에 전문성을 더해준 학계(Akademisi) 관계자분들과 지역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당해 지역 사회 지도자(Tokoh Masyarakat)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신 PT. Bosung Indonesia, PT. Green Nature Farm, Tous les Jours, PT. QUTY KARUNIA까지 힘을 보태주셨다.

20년 전통의 땅그랑반튼한인회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한인동포는 물론 지역현지



주민과의 상생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인동포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폭넓고 깊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편집부]

“날아라 운동화”



러시아 모스크바 무제온 예술공원에서 열린 ‘렛페스트’ 스포츠 축제에서 한 참가자가 6m 높이의 경사로를 타고 모스크바강으로 발사되는 운동화 모양의 수제 비행체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2026.08.23.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UM GREEN NUSA

인니 섬유 수출, 글로벌 수요 회복에 올해 최대 3.2% 성장 전망



▲중부자카르타 파나야방 시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수출금융기관(LPEI)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섬유 수출이 올해 2~3.2%, 2027년에는 3.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들은 회복세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생산설비 현대화와 생산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금융기관(LPEI)에 따르면 직물 완제품은 인도네시아 전체 섬유 및 섬유제품(TPT) 수출의 약 74%를 차지한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품질과 적기 납품, 공급망 추적 가능성, 국제 표준 준수, 지속가능한 소재 등을 점점 더 요구하면서 수출 성장을 지속하려면 공급망 강화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카프모 빠드모수카르소 LPEI 전무이사는 지난 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과 2027년 섬유 수출 증가 전망은 점진적인 수요 회복을 기반으로,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품질이 일관되며 꾸준히 주문이 이어지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해 인도네시아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금융기관은 원사와 직물, 편물 등 섬유 업스트림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2025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일본,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중국, 미국이 주요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의류 산업 성장도 인도네시아산 섬유 소재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베트남, 튀르키예와의 경쟁, 변화하는 무역정책, 고르지 못한 글로벌 수요 등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수카프모 전무이사는 “바이어의 요구에 적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수요 회복의 기회를 활용하고 수출을 지속가능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생산설비 현대화 역시 생산성, 에너지 효율성, 품질의 일관성을 높이고 글로벌 바이어들의 강화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요하다

고 수출금융기관(LPEI)은 강조했다.

디지털화, 폐기물 처리, 친환경 기술 도입과 수출 주문을 위한 운전자금 확보도 추가적인 자금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도네시아 섬유및필라멘트사 생산자협회(APSyFI)의 레드마 기파 위라와스파 회장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섬유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장이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LPEI의 전망에 동의한다. 베트남과 인도 등 경쟁국들도 7% 이상의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2~3% 성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결정적인 요인은 글로벌 시장의 회복”이라며 “산업 구조가 탄탄하다면 5%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레드마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생산비용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국내 산업의 통합 구조가 취약해 제조업체들이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원사와 직물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덤핑 수입품’이 국내에 유입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더욱 어려워져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경쟁국에도 추가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반드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는 지난 7일 섬유·의류산업이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6.36% 성장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섬유·의류산업 투자액은 11조4천억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조1900억 루피아보다 11.85% 증가했다.

올해 1~5월 섬유·의류 수출액은 48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억7천만 달러에서 1.57%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34억1천만 달러에서 35억8천만 달러로 더 빠르게 늘었다.

섬유협회(API)는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산 섬유·의류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

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입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을 넘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조정부의 에디 팍부디 관계자는 인구가 많고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큰 시장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비즈니스닷컴에 “인구가 2억 명이 넘고 사계절이 있는 국가들은 섬유제품의 좋은 시장이며 인도네시아산 스포츠웨어와 신발·아웃도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섬유·의류 및 신발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인쇄

카다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의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021 3002 9087 021 3002 9091 / 9090
0858 9060 0962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인니 실업률 하락에도, 해고 증가에 일자리 질 우려



▲2025년 브카시 취업 박람회장에 몰린 구직자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계속되는 해고와 비공식 부문으로의 고용 이동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6년 5월 실업자는 722만 명으로, 실업률은 4.65%를 기록했다. 이는 2월의 4.68%보다 소폭 낮아진 수준이며, 실업자 수는 약 2만4천 명 감소했다.

5월 취업자 수는 1억4,819만 명으로 2월보다 52만2천 명 증가했고, 전체 노동력은 1억 5,541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표면적인 고용 개선과 달리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은 계속되는 해고와 비공식 고용 중심의 구조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고돼 실직보험(JKP)에 등록된 근로자는 4만 3,80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부자바가 전체의 20.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1~5월까지 해고된 근로자가 최소 12만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상당수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해고가 공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비공식 근로자는 8,788만 명으로, 공식 근로자 6,031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0%에 불과했지만, 2월의 40.58%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들이 대학 졸업자보다 직업고등학교와 폴리테크닉(전문대학과 유사) 졸업생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협회의 고용 부문 책임자인 봄 아잠은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기업들이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를 확대하면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대 경제경영학부 경제사회연구소(LPEM FEB UI)가 2026년 7월 발표한 노동시장 보고서는 2025년 8월 노동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약 800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자신의 학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

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적용해 근로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을 비교해 직무 불일치 정도를 측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스텔라 크리스티 차관은 지난 6일 2021~2024년 실시된 졸업생 추적조사 결과 직업교육 졸업생의 약 77%가 취업한 반면, 일반 학문교육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은 72%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과 강사진 및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 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해고 사례가 장기간 증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흐름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보다 새롭게 취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해고 위험이 높은 산업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통계청이 고용지표와 함께 빈곤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2026년 3월 기준 빈곤층은 2,29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7%를 차지해 2025년 9월의 8.25%보다 감소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美 우회수출 낙인에 정면 반발... 롯데케미칼 현지 설비로 통상 리스크 정면 돌파

미국 백악관 보고서의 중국산 우회수출국 지정에
인도네시아 정부 강력 반발
바탐과 베카시 공업지대의 독자적 제조 공정과
자국 내 원료 생산 강조
롯데케미칼 등 현지 생산 시설이 통상 규제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통로로 지목한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했다.

CNBC인도네시아는 8월 20일(현지 시각)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이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백악관 보고서의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고 보도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영토 안에 구축한 한국 기업 생산 설비가 독자적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백악관 보고서 지목에 공식 반박

미국 행정부는 '위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를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도가 높은 '티어 2' 국가로 분류하며, 우회수출 위험이 큰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우회수출 우려 국가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등 6개국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현지 제조업이 중국 공급망과 밀접하게 결합해 우회수출 통로로 활용될 위험이 있음을 분석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악관 보고서가 우회 경로로 언급한 바탐과 베카시 공업지대의 역사를 중요한 반론 근거로 제시했다.

두 지역 공업지대는 1990년대부터 조성을 시작해 제조업 가치사슬을 형성해 온 곳이며, 현지 생산 활동은

타국 제품을 단순 환적하는 통로가 아닌 독자적 제조 공정을 갖추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설명했다.

자국 내 원료 생산과 현지 소비 구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과 패키징 산업이 중국산 화학 원자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국내 생산 원료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이 분야의 주요 생산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자국 법인과 현지에 설립된 합작 법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찬드라아스리와 한국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생산 설비를 예로 들어 플라스틱 원료를 자국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장재 제품은 대부분 자국 안에서 소비하거나 동남아 인접국으로 수출하며, 미국 수출 비중은 전체 생산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 현지 생산 시설이 지닌 통상 방어적 의미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석유화학 기업의 현지 공장을 공급망 투명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롯데케미칼은 현지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가동해 원료 자급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현지 제조업 체질을 개선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업계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생산 시설과 공급망 구조가 향후 미국 통상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특별 할인 행사 중고제품 1대 : 99 juta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달리기의 경제성에는 어딘가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달리는 시작하는 데 거의 돈이 들지 않는 몇 안 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다. 코트도, 회원권도, 입장권도, 심지어 함께 할 파트너조차 필요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운동화 한 켤레와 달릴 길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소비 산업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달리기 그 자체에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 대회 참가비, 러닝화, 의류, 스마트워치, 건강 및 웰니스 제품은 물론 호텔, 교통, 식사, 심지어 대회 참가를 겸한 주말 여행에 이르기까지 달리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 비용을 지출한다.

스포츠 자체는 무료일지 몰라도, 그 경험은 무료가 아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거대한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다. 컨설팅 기업 데이터인텔로(DataIntel)의 ‘마라톤 이벤트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달리기 대회 시장 규모는 약 28억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10년 내에 거의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리기만을 목적으로 도시나 국가를 이동하는 ‘마라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5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 세계 러닝화 시장 규모는 이미 작년에 약 195억~260억 달러에 이르렀다.

수요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27년 런던 마라톤 참가 신청자 수는 130만 명을 넘어 세계 기록을 세웠다. 뉴욕에서는 ‘뉴욕 로드 러너스(New York Road Runners)’가 주최한 대회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 약 9억 3,400만 달러의 추가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달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은 돈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헬스장 회원은 주로 한 시설 안에서만 소비하는 반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러너는 소비 활동을 함께 이동시킨다.

이들은 호텔, 교통편, 식사는 물론이며, 최근에는 집으로

달리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선 활동이 되고 있다. 현재 러너의 약 3분의 1, 특히 2세대 러너들은 커뮤니티와 함께 달리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네시아 러너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약 16km를 달리며, 연령대가 높은 러너들은 그보다 더 먼 거

달리기는 점차 하나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매주 훈련하고, 클럽에 가입하며, 대회에 참가한다. 또한 러닝화를 교체하고, 새 운동복을 구입하며, 다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운동으로 시작된 활동이

발선을 채우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시기에 지역 내 소비를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킨 것이다.

게다가 그로 인한 지출은 스포츠 행사 자체에만 머물지 않았다. 교통비는 21.9%, 외식비는 10.1%, 숙박비는 6.4% 증가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관광이 가진 경제적 효과의 가장 단순한 원리다. 사람들은 ‘달리기’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도시를 찾지만, 그들의 지출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참가자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경우, 이러한 지출은 더욱 가치 있는 의미를 지닌다. 즉, 기존에 있던 자금이 단순히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러너들이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

경주가 끝난다고 해서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러너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생태계 또한 확장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스포츠웨어 시장은 연평균 8% 성장하여 2025년에 약 38조 5천억 루피아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58조 6천억 루피아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 기준,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된 스포츠 신발 중 러닝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 달했다.

현지 브랜드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러닝화 상위 10개 제품 중 한 인도네시아 브랜드의 제품이 전체 판매량의 36%를 차지하며 해당 그룹 내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자산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커뮤니티’다. 커

달리기의 경제학 공짜 스포츠가 거대 산업이 되기까지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8월 11일자에 게재된 만다리 연구소 Bobby Hermanus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자카르타 스나안 글로라 봉 가르노 경기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돌아가기 전 관광 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따라서 대회 참가비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경제적 가치는 그 뒤에 이어지는 지출에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6년에는 34개 주,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건이 넘는 달리기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이는 2022년 기록된 수치의 약 5배에 달한다.

달리기 커뮤니티 또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피트니스 추적 앱인 스트라바(Strav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러닝 클럽 수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거의 6배나 증가했다.

리를 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달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성장해 왔느냐 하는 것이다.

달리기 관련 검색 관심도는 일부 다른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반짝 인기 후 급락(boom-and-bust)’ 패턴을 따르지 않고,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러한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인 열풍으로 인한 트렌드는 나타날 때 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지만, 습관으로 자리 잡은 트렌드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소비 주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달리기 행사가 경제를 움직인다
실제 거래 데이터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하면 그 영향력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2026년 만다리 족자 마라톤(MJM) 기간 동안 족자카르타를 찾은 러너는 10,200명으로, 2017년 첫 대회 당시의 약 6천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대회 주간 동안 족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의 만다리소비지수(MSI)는 7.4% 상승했는데, 이는 2025년 MJM 당시 기록된 상승 폭의 1.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자바섬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으며, 다른 지역의 상승 폭과 비교하면 1.2배에서 4.1배에 달했다. 특히 시기적인 요인이 이 결과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마라톤 개최 전, 족자카르타의 주간 소비 증가율은 0.5% 수준에 불과했지만, 대회가 열린 주간에는 그 수치가 7.3%로 치솟았는데, 이는 지난 4년 사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였다.

따라서 이 행사는 단순히 출

뮤니티는 소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한 번 대회에 참가한 러너는 또 다른 대회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매주 훈련하는 러너는 결국 새로운 러닝화가 필요하게 된다.

러닝 클럽은 의류, 식음료, 여행, 웰니스, 그리고 스폰서십 등과 관련된 기회를 창출한다. 이는 러닝이라는 활동에 ‘성장’, ‘반복’, ‘이동’이라는 독특한 경제적 결합을 부여한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성장하고, 활동이 습관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소비가 발생하며, 경주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거주 도시를 넘어선 소비가 일어난다. 이제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소비 트렌드는 드물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기회는 단순히 경주 대회를 더 많이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회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지방 정부의 경우, 스포츠 이벤트를 더 포괄적인 관광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력적인 명소가 있는 중소

도시들은 러닝, 사이클링, 철인 3종 경기 또는 기타 커뮤니티 기반 스포츠를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여, 기존 관광 중심지 밖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그들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기업에게 있어 이러한 기회는 신발이나 의류를 넘어선 영역으로 확장된다. 호텔, 식당, 교통, 관광, 디지털 결제, 건강 및 웰니스, 보험, 소비자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활동적인 소비자층의 증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 또한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석했는가보다는, 해당 행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을 창출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참가자들은 어디서 오는가?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무엇에 돈을 쓰는가? 어떤 지역 기업이 혜택을 보는가? 이러한 지표들이 어떤 행사가 지속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제거리에 그치는지를 알려준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은 왜 돈

을 내면서까지 달리기를 하는가?’ 보다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달리기로 결정했을 때 경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다.

그에 대한 답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다. 단 몇 시간의 달리기가 호텔 객실, 식당, 교통수단, 상점, 관광 명소를 북적이게 만들며, 신발과 의류부터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EU와 CEPA 10월 체결 목표...연말 GSP 종료 앞두고 속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을 오는 10월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 고위급 관계자들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된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포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IEU-CEPA가 양측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야 발효될 수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협정의 영문본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디 산포소 무역부 장관은 비준 절차와 관련해 하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제품의 EU 수출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안이며, IEU-CEPA가 조속히 비준되면 GSP 종료와 IEU-CEPA 발효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IEU-CEPA가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 제품이 EU 시장



▲자카르타 땀중 뿌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에 진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 품목의 약 90%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0%가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EU-CEPA가 유럽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유럽 각국의 기업 사절단과 정부 관계자들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전력 및 수력발전, 배터리, 재생에너지, 디지털 산업, 첨단 제조업, 핵심광물 가공, 물 관리, 지속가능한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유럽 투

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제는 보다 균형 잡힌 협력을 통해 EU와 인도네시아 모두의 복지에 기여할 때”라고 말했다.

양측은 사이버보안, 농업, 기술 및 혁신 분야의 협력도 논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산업화, 인력 개발,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EU 대사 데니스 차이비는 EU 회원국 전체가 CEPA의 조속한 체결

과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이 유럽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비 대사는 “많은 장관과 경제 사절단이 방문하고, 심지어 왕실 인사들도 곧 인도네시아를 찾을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이 CEPA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EPA 발효 전까지의 기간을 EU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협정에 대비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양측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법률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CEPA 이행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차이비 대사는 설명했다. “EU는 상업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 메시지”라며 유럽 기업과 인도네

시아 정부 부처 간 교류 확대가 CEP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가 제안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환영했다. 이 TF는 기업들이 CEPA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EU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조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와 EU 간 교역액은 약 319억 달러로, 인도네시아는 약 7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EU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약 136억 달러에 달했으며, 24만5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EU 투자는 제약, 화학, 첨단 제조업, 전력·수도 등 공공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미중 무역전쟁, 인도네시아에 투자 유치 확대 기회 제공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제조업과 산업 분야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이 확산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산업 육성 및 다운스트림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산업부 파이솔 리자 차관은 지난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과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이 완공되기도 전에 많은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관은 중국 기업들이 이미 상당 기간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왔으면서 최근의 흐름은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들의 관심은 제조업뿐 아니라 다난타라(Danantara)가 관리하는 디메탈에테르(DME) 가스화 및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이들 사업 가운데 최소 6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 기업들의 투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도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본토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홍콩의 투자액도 23억 달

러에서 76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을 합친 투자액은 올해 상반기 1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억 달러보다 약 3배 늘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의 농업·토지·공간계획 담당 부회장인 산니 이스칸다르는 지난 13일, 생산기지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주요 생산거점에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원자재 접근성과 수출시장과의 거리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다변화할 경우 제조업체의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부자바 마두라의 위라라자 마두라 산업단지(Kawasan Industri Wiraraja Madura)는 지난 8월 10일 중국 광둥성의 평웅 아세안 산업단지(China's Guangdong Fenyong ASEAN Industrial Park)와 양국 트윈 파크(Two Countries Twin Parks) 사업을 통해 수출 중심 제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곳에는 초콜릿, 매트리스, 섬유, 원사 등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산업단지협회 회장 이자 위라라자 사장 아끄마드 마루프 마울라나는 이번 협력이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리아우제도 바탐 자유무역지대도 특히 기술 분야에서 중국 투자의 주요 목적지로 떠올랐다. 바탐개발청(BP Batam)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투자 실현액은 17조4천억 루피아(약 9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증가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데이터센터 기업 레인지 인텔리전트 컴퓨팅 테크놀로지(Range Intelligent Computing Technology)가 바탐 농사파크(Nongsapark)에 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첫 해외 진출에 나섰다.

바탐에는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Oracle)도 최대 60억 달러를 투자해 클라우드 리전(데이터센터 집적 지역) 인프라를 구



▲바탐 자유무역지대 소재 ASL 조선소(사진=ASL Shipyard Indonesia)

축할 계획이며, 엔비디아(Nvidia)도 투자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의 데이원(DayOne)과 호주의 인공지능 기업 퍼머스 테크놀로지(Firmus Technologies)는 6월 36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완공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가 미국의 대 인도네시아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정책연구센터(CIPS)의 꼬리스나 굽따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인도네시아의 투자 정책이 중국을 특별히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단순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자가 반드시 '환적(transshipment)'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환적은 상품의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최종 목적지인 국가로 보내기 전에 다른 국가를 거쳐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공급망 재편으로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미국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굽따 연구원은 미국의 환적 단속이 국제무역 전반을 위축시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에 피해를 주고,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협력업체를 통해 제품을 조립하는 애플 역시 과거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다. 애플 협력업체들은 바탐에서도 생산을 확대했으며, 현지 협력업체가 에어태그와 에어팟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백악관이 8월 13일 '대규모 불법 환적(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보다 관세가 낮은 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새로운 원산지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국이 40개 이상의 저관세 국가를 통한 불법 환적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함께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대규모 산업 생산능력, 물류 역량을 갖춰 미국행 물품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특히 중국과 연계된 플라스틱 상자, 케이스, 껍질 및 포장용품의 환적과 관련해 브카시-바탐 물류 회랑을 거론했다.

싱가포르 소재 힌리히재단(Hinrich Foundation)의 데보라 엘름스 무역정책 책임자는 지난 18일,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도네시아에 잠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강화된 감시를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미 이 문제가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체결된 인도네시아-미국 상호무역협정(ART)은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환적 및 기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협정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
카카오톡 ID : rickyoon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7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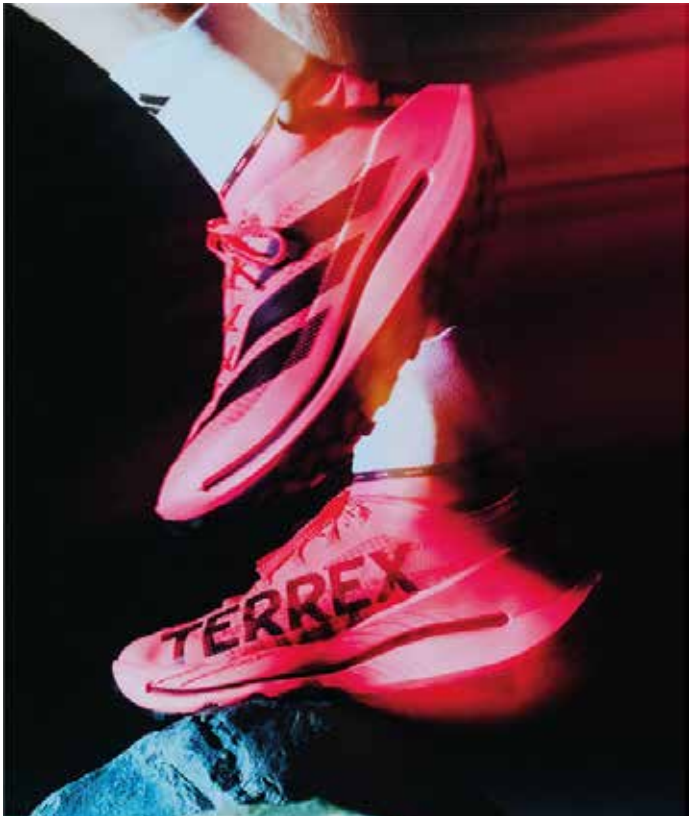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로드의 속도를 산으로, 아디다스 테렉스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에보’

로드 슈퍼슈즈 기술을 트레일로



아디다스 테렉스(adidas TER-REX)가 로드 레이싱에서 발전시켜 온 기술을 트레일로 옮긴 새로운 레이싱화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에보’를 공개했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3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모델로, 빠른 속도뿐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 불규칙한 노면까지 대응해야 하는 트레일 러닝의 특성에 맞춰 주요 구조를 다시 설계했다. 275mm 사이즈 기준 평균 무게는 250g. 기존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2보다 약 5% 가벼워졌다. 브랜드 측은 러닝 이코노미가 1% 이상, 에너지 리턴은 10% 이상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신발 양측에 각각 배치된 ‘듀얼 에너지림’이다. 하나의 구조가 신발 전체를 감싸던 기존 방식과 달리 좌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울퉁불퉁한 지면에서도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몰드 방식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을 적용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대비 15% 더 큰 변형을 구현했고, 발을 감싸는 ‘트레일락’ 우븐 어퍼로 장거리 주행 시 안정감과 착화감을 보완했다. 힐 높이는 39mm, 포어풋은 33mm로 드롭은 6mm다.

제품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생체역학 전문가와 엘리트 트레일 선수들의 반복적인 테스트를 거쳐 개발됐다. 실험실뿐 아니라 실제 트레일 환경에서 검증

을 이어간 것도 특징이다. 그렇다면 250g까지 무게를 줄이면서 울트라 트레일에 필요한 내구성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또 로드 레이싱 기술을 평평하지 않은 산길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을지 질문을 던졌다.

로드 슈퍼슈즈 기술을 트레일로 아디다스 테렉스(adidas TER-REX)가 로드 레이싱에서 발전시켜 온 기술을 트레일로 옮긴 새로운 레이싱화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에보’를 공개했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3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모델로, 빠른 속도뿐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 불규칙한 노면까지 대응해야 하는 트레일 러닝의 특성에 맞춰 주요 구조를 다시 설계했다. 275mm 사이즈 기준 평균 무게는 250g. 기존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2보다 약 5% 가벼워졌다. 브랜드 측은 러닝 이코노미가 1% 이상, 에너지 리턴은 10% 이상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신발 양측에 각각 배치된 ‘듀얼 에너지림’이다. 하나의 구조가 신발 전체를 감싸던 기존 방식과 달리 좌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울퉁불퉁한 지면에서도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몰드 방식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을 적용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대비 15% 더 큰 변형을 구현했고, 발을 감싸는 ‘트레일락’ 우븐 어퍼로 장거리 주행 시 안정감과 착화감을 보완했다. 힐 높이는 39mm, 포어풋은 33mm로 드롭은 6mm다. 제품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생체역학 전문가와 엘리트 트레일 선수들의 반복적인 테스트를 거쳐 개발됐다. 실험실뿐 아니라 실제 트레일 환경에서 검증

을 이어간 것도 특징이다. 그렇다면 250g까지 무게를 줄이면서 울트라 트레일에 필요한 내구성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또 로드 레이싱 기술을 평평하지 않은 산길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을지 질문을 던졌다.

는 39mm, 포어풋은 33mm로 드롭은 6mm다.

제품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생체역학 전문가와 엘리트 트레일 선수들의 반복적인 테스트를 거쳐 개발됐다. 실험실뿐 아니라 실제 트레일 환경에서 검증

을 이어간 것도 특징이다. 그렇다면 250g까지 무게를 줄이면서 울트라 트레일에 필요한 내구성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또 로드 레이싱 기술을 평평하지 않은 산길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을지 질문을 던졌다.

250g의 경량 구조를 고려했을 때, 울트라 트레일 레이스에 필요한 내구성과 경량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췄나요? 권장 레이스 수명이나 주행거리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에보는 실험실에서만 개발한 제품이 아

니다. 선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했고 그 과정에서 내구성도 함께 검증했다. 트레일 레이스는 42km부터 100마일까지 거리가 다양하지만 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인 권장 주행 거리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번의 레이스만을 위한 제품은 아니며 일반 소비자 역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드 레이싱 기술을 트레일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기존 에보 제품에서는 에너지림 구조가 신발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였다면, 이번 제품에는 이를 두 개로 나눈 ‘듀얼 에너지림’을 적용했다. 신발 양측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해 울퉁불퉁한 지형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러닝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eyesmag

아디다스, 앤서니 에드워즈 3 ‘블리스 블루’ 공개



시그니처 실루엣에 몰드 처리된 TPU 서포트 오버레이와 전장 하이퍼부스트 쿠셔닝을 적용했다. adidas가 앤서니 에드워즈의 세 번째 시그니처 농구화인 Anthony Edwards 3 “Bliss Blue”를 공식 공개했다. 올가을 출시를 앞둔 이 모델은 에드워즈의 “Believe That” 투어 마닐라 일정에서 처음 착용된 모습으로 공개됐다.

AE 3는 가벼운 메쉬 어퍼를 주로 사용하고, 외측과 내측에 날카로

운 형태의 몰드 TPU 파츠를 더해 구조적 지지력을 확보했다. AE 2에서 한 단계 진화한 디자인이다. 어퍼는 단색 블루 톤으로 구성했으며, 밝은 메쉬 언더레이와 한층 선명한 몰드 오버레이가 대비를 이룬다. 실포에는 앤서니 에드워즈의 시그니처 로고를 배치했고, 힐에는 adidas의 전통적인 퍼포먼스 브랜딩을 더했다.

아웃솔 아래에는 폴렌스 Hyperboost 쿠셔닝과 일체형 미드풋 플레이트를 적용해 코트 위에서의 반응성을 끌어올렸다. 반투명 블루 러버 아웃솔은 바닥면을 감싸며 톤온톤 팔레트를 완성한다.

HYPEBEAST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Nike, 공식 ‘One Piece’ 풋웨어 · 어패럴 컬렉션 공개



애니메이션 협업으로 데빌 프루츠에서 영감을 받은 Air Max Plus와 만화 프린트 어패럴을 선보인다.

Nike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만화 프랜차이즈 One Piece에서 영감을 받은 풋웨어 및 어패럴 컬렉션을 공식 발표했다. 스포츠웨어 헤리티지와 글로벌 팝컬처를 접목한 이번 협업은 작품의 주요 설정을 스페셜 에디션 풋웨어와 협업 어패럴에 담아냈다.

컬렉션의 중심에는 이번 협업을 위해 어퍼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Nike Air Max Plus 3가지 컬러웨이가 있다. 각 디자인은 작품에 등장하는 데빌 프루츠, 즉 Gomu Gomu no Mi와 Ope Ope no Mi, Mera Mera no Mi

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 Nike Energy Gaming의 총괄 매니저 Nick Remlinger는 “One Piece 캐릭터들이 데빌 프루츠를 먹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나이키를 신었을 때 느끼는 감각과도 닮아 있죠”라고 말했다.

어패럴 라인업은 Nike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Air Max Plus 저지와 캡으로 풋웨어를 보완한다. 티셔츠에는 클래식 Nike 광고의 스타일과 만화 일러스트를 결합하고, Monkey D. Luffy가 그린 Jolly Roger 그래픽을 더했다. 데빌 프루츠를 먹으면 수영할 수 없게 된다는 작품 속 설정에서 착안한 스페셜 베스트까지 더해져 라인업을 완성한다.

Nike x One Piece 컬렉션은 2026년 9월 4일부터 도쿄의 스페셜 팝업 및 리테일 공간에서 먼저 공개된다. 9월 12일 HBX에서 출시되며, 2026년 9월 25일에는 SNKRS를 통해 전 세계에 발매될 예정이다. HYPEBEAST

New Balance 1890A ‘Cowprint’, 점박이 퍼로 감싼 로퍼 실루엣 9월 출시



이러한 어퍼가 돋보이도록 솔 유닛은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낮췄다. 미드솔과 아웃솔을 가로지르는 블랙은 퍼 위에 흩어진 짙은 반점을 받아내고, 화이트 로프 스타일 슈레이스는 전체 구성에 유일하게 밝은 포인트를 더한다. 강렬한 주인공을 받쳐 주는 절제된 구성 덕분에 콘셉트가 코스트처럼 과해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일회성 실험에 그치지

않는다. “Cowprint”는 2026년 공개된 두 번째 애니멀 모티프 1890A로, 앞서 연초에 등장한 옐로 컬러의 스네이크스킨 에디션을 잇는다. 두 모델을 함께 보면 New Balance가 1890A를 질감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캔버스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깔끔한 로퍼 베이스를 중립적인 배경으로 두고, 갈수록 표현력이 강해지는 소재를 선보이는 방식이다. 두 모델의 실루엣은 같지만, 비닐 질감의 스네이크스킨을 부드러운 퍼로 바꾼 것만으로도 소재가 같은 형태의 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Supreme과 Nike, Air Max 2001 Air Ecstasy 협업 공개

퀵팅 메쉬 어퍼와 3M 반사 디테일을 적용한 익스클루시브 스니커즈가 세 가지 컬러웨이로 출시된다.

Supreme이 Nike와 공식 협업해 Air Max 2001 Air Ecstasy의 새로운 익스클루시브 버전을 선보인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출시되는 협업 스니커즈는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구조에 Supreme만을 위해 제작한 스트리트웨어 디테일을 더했다. 어퍼는 퀵팅 메쉬 소재로 제작했으며, 측면과 힐에는 3M 반사 TPU 로고를 배치했다. 반사 디테일은 레이스 루프와 전용 텅 패널에도 적용했다. 지지력과 쿠셔닝을 위해 투명 에어백을 내장한 Phylon 미드솔을 사용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러버 아웃솔을 더했다. 힐과 미드솔에는 음각 그래픽을 새겼으며, 내부에는 양사 로고를 더한 풋베드와 메쉬 칼라, 텅 안감을 적용했다.

이번 스니커즈는 2026년 가을/



겨울 룩북을 통해 처음 티징됐다. 레트로 실루엣은 Supreme의 시그니처 매트 레드 어퍼에 옐로 미드솔과 실버 에어 버블을 매치한 버전으로 먼저 공개됐다. 올 블랙 컬러웨이도 함께 선보이며, 화이트 메쉬 어퍼에는 에어 버블과 어우러지는 아이시 블루 그라데이션 오버레이를 더한 버전도 출시된다.

Supreme x Nike Air Max 2001 Air Ecstasy는 8월 27일 Supreme 공식 웹사이트와 플래그십 매장에서 전 세계 출시되며, 아시아 지역은 이를 뒤인 8월 29일 발매된다. HYPEBEAST

아식스, 향상된 기술력 ‘젤-넘버스26’ 출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ASICS)가 고기능성 쿠셔닝과 충격흡수력으로 장거리 달리기

에 적합한 쿠셔닝 러닝화 젤-넘버스(GEL-NIMBUS 26)를 출시한다. 젤-넘버스의 특징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아식스그립 기술이다. 아식스그립과 아하플러스(AHARPLUS) 밀창 고무의 조합은 더 높은 마찰력으로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더욱 부드러운 착용감과 향상된 내구성을 선보인다.

이전 시리즈인 젤-넘버스25는 남호주 생체 역학 연구소에



닝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기에 새롭게 출시된 젤-넘버스 26 또한 러너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미드솔은 이전 모델과 같이 가벼운 FF블라스트+에코 폼을 적용해 단거리와 장거리 러너 모두에게 적합한 쿠셔닝을 제공한다. 또한 전략적으로 후족부에 배치된 퓨어젤(PureGEL) 기

술은 기존 젤 기술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향상된 충격흡수 기능을 갖췄다.

아식스 관계자는 “넘버스 시리즈는 쿠셔닝 러닝화 중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러너들이 기대하는 부드러운 쿠셔닝에 집중해 제품을 개발해 더욱 편안한 착화감과 내구성을 위해 연구하고 업그레이드 했다”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CO2e 라벨링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FASHION POST

톱슨 목 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KOTRA, ‘2026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해외출장 가이드’ 발간… 강화된 비자 규제 주의인도네시아 출장, 목적별 비자 확인 필수

가격 우선 · 화교 자본 중심의 인도네시아 시장



▲2026 코트라 해외출장 가이드 표지 일부 캡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8월 5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26 해외출장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인도네시아

출장을 계획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경제 현황부터 비즈니스 관행, 현지 생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

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는 조코위 대통령의 핵심 산업 정책인 다운스트림 산업 고도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 무상급식 등 복지 · 사회 지원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26년 1분기 기준 5.61%를 기록하며 견조한 내수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인구 2억 8천만 명이 넘는 거대 시장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5천 달러 미만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권의 큰 비중을 화교 자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의 3/4 이상이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고, 2029년에는 전체 소매시장의 4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해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현지 최대 소비 시즌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는 ‘르바란’이며, 유통 구조는 운송 및 통신 수단 발달과 함께 온라인 직접 판매가 늘어나며 단순해지

는 추세다. 특히 이번 출장 가이드에서는 최근 이민국의 비자 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사항이 상세히 포함되었다. 출장자는 자신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체류 시 주요 유의 사항]

비자 단속 강화: 이민국이 체류 자격의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준비가 필수이다. 이민법 제122조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다.

도착비자(VOA) 활용: 도착비자는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 비영리 목적으로만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한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도착비자 제한 사항: 전시장 부스 방문 지원 활동, 대중공연, 촬영, 봉사활동 등은 도착비자로 할 수 없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전시회 참가 등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해당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 활동 시 주의: 도착비자로 입국해 회사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것은 금지된다.

비즈니스 협의 시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나 작업 환경과 관계 없는 장소 이용을 권장한다. 상세한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 및 출장 관련 정보는 KOTRA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에어 컴프레서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